쇼소인 문서에 불경 필사본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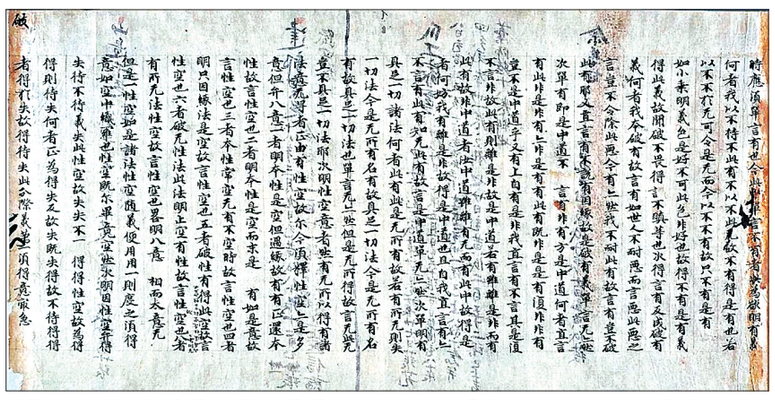
일본 最古 〈대승현론〉 사본 발견돼

박영빈 객원기자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타임캡슐로 불리는 일본 토다이지(東大寺)의 보물고, 쇼소인(正倉院)에서 고대 불경 필사본들의 단간들이 발견됐다. 해당 필사본들은 쇼소인 문서라고 불리는 문헌들 사이에서 이면지로 재활용된 필사본들 사이에서 발견됐다. 이중엔 중국의 길장대사가 저술한 〈대승현론〉도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6월 20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특별 보도했다.

쇼소인은 일본 나라시에 소재한 토다이지 경내의 보물고다. 이곳은 토다이지를 창건하고 대불을 조성한 쇼무천황의 사후, 아내인 고묘황후가 천황의 명복을 빌며 생전 천황의 애장품들과 자신의 귀중품들을 756년 왕실 보물고로 경내에 건립했다.

이후 8세기를 중심으로 일본 왕실과 귀족들이 바친 다양한 공예품과 문서 등 고대의 보물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이중 불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헌군을 쇼소인 문서라고



새롭게 발견된 〈대승현론〉 사경. 다른 문서의 이면지로 사용됐다. 사진출처=요미우리

하는데 국내에는 신라시대의 행정문서인 '신라촌락문서'가 다른 사경의 배접지로 쓰인 것으로 유명하다.

1만 점이 넘는 쇼소인 문서들 가운데, 필사나 작성에서 다양한 이유로 파기된 문서와 이면지나 배접지로 재사용 된 것들이 많은 것이 확인되면서, 2년 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사용된 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판독 중 중국 수나라 때의 고승으로 삼론종의 조사인 길장(吉藏)대사의 〈대승현론(大乘玄論)〉이 발견됐다. 〈대승현론〉은 길장대사 만년의 저술로 삼론종의 정수를 간명하게 밝히는 개요서다.

발견된 〈대승현론〉의 단간은 세로 29.1cm, 가로 57.6cm로, 내용은 삼론종에서 강조하는 중도(中道)를 설명하는 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필사자의 실수로 보이는 공백과 문장의 반복 등이 곳곳에 보이며 사경지의 좌측 상단에 파기를 뜻하는 '파(破)'자가 기입되어 있다.

조사를 담당한 스기모토 카즈키 박사는 "이번에 발견된 〈대승현론〉은 사경 중에 실수로 파기된 사경지가 다른 행정문서의 이면지로 활용된 것이다. 이면지로 활용된 문서의 기록에 746년 3월이라는 기록이 남은 것에서 사경은 동시대, 혹은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진행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파기된 경전이나 불전을 이면지로 사용한 문헌이 적지 않은 만큼, 다른 문헌들도 확인하여 새로운 사본들이 없는지 밝히겠다"고 전했다.

쇼소인 문서 조사팀은 "종이와 사경 방식 등이 토다이지가 소장한 나라시대의 사경들과 일치하는 것에서, 토다이지 사경소에서 필사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시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사경사업의 일환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대 사경들 가운데 706년에 필사된 길장의 저서인 〈정명현론(淨名玄論)〉이 존재하기에 이 저술도 아마 함께 전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대승현론〉의 최고(最古)사본은 13세기경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발견으로 전래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팀과 함께 필사본을 확인한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의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길장의 저술은 나라시대를 잇는 헤이안시대의 천태종, 진언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라시대의 사본이 전하지 않았기에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대승현론〉 사본이 나라시대의 것이 확실하다면 고대 불교사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로부터 사원 지키는 '소방 승려'

벤타나 보호구역 화재, 스님들 산불 대비 나서



지난 17일 몬트레이 카운티 로스 파드레스 국유림에 벤타나 야생동물 보호구역(Ventana Wilderness)에서 발화한 산불 '윌로우 파이어'로부터 사원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소방 스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 KTLA는 6월 22일(현지시간) "7명의 승려들이 빅서(Big Sur) 지역 인근 타사하라 젠 센터(The Tassajara Zen Mountain Center) 주변의 수풀을 깎고, 건물 주변에 습기를 유지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밤새도록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벤타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부터 번지고 있는 산불로부터 사원을 지키기 위함이다.

해당 선명상센터장은 "1마일(약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코앞 거리에 산불이 났는데 사원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윌로우 파이어로 인해 아로요세코 캠프장 북쪽에서부터 아나스타샤 캐년, 카르멜 밸리 서쪽, 타사하라 동쪽 지역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발화 지점 인근에는 각종 멸종동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하라 젠 센터 등 문화사적지가 위치해 있다.

인근 지역민들은 타사하라 젠 센터로 대피했다.

타사하라 젠 센터는 2008년 화재 이후 승려들의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 스님들은 전문 소방관들로부터 매년 소방 훈련을 받았다. "다른 승려들과 똑같이 수행 생활을 하면서 '소방 스님'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스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센터장은 설명했다. 센터장에 따르면 스님들은 타사하라 젠 센터 외에도 지역 소방관들을 도와 화재 진압이 필요한 곳곳을 누빈다.

한편 윌로우 파이어는 지난 17일 발화해 22일까지 약 3000에이커 면적을 태웠다.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불길을 잡기 쉽지 않았다고 지역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지역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미술로 불교를 표현하다

日현대미술가 전시회
6월 21일 아사히신문 보도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포교에 이용하려는 다양한 활동이 교계 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 현대미술가인 스님이 설치미술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선보이는 시도를 보여 화제다. 6월 2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현대미술을 포교에 활용하는 스님의 작품을 소개했다.

일본 카가와현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지센지(慈泉寺)의 카타오카 묘쇼 스님은 지난 19일 부터 첫 개인전 '꽃은 지지 않는다'를 열고 있다. 묘쇼 스님은 "코로나 시국에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이어지는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행복의 형태를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회의 개최 의의를 전했다.

스님은 첫 개인전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현대미술이나 일러스트 등 미술작업을 이용하여 포교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실제 종단에서도 법문과 사회활동으



전시중인 작품 앞에 선 묘쇼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로 불교를 전하는 '포교사' 법계를 정식으로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스님은 "집안이 사찰이긴 했지만, 오빠가 절을 이을 것이기에 출가에 부담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다. 본래 미술을 좋아했고, 전통공예의 장인이 되고 싶어 교토의 예술대학으로 진학했었다"며 자신의 경력을 전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스님은 "장인은 선인의 철학과 전통을 계승한다. 어느 날, 출가자가 되는 것도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과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학을 중퇴하고 곧바로 출가한 계기를 말했다.

특히 스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시절, 등교를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당시 주지였던 할아버지가 '모처럼 쉬는데, 놀지 않는 건 아깝다'며 주변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격려해 주었다. 체면이나 상식에 맞추는 것이 아닌 상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가를 전하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접근법이라 생각한다"고 현대미술을 응용한 포교활동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전시 역시 지역 상점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폐점한 은행을 전시장으로 개조하여 작품들을 전시했다. 3부로 구성된 전시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설치미술로 마련됐다.

먼저 1층의 첫 전시 공간은 촛불을 밝히고 꽃을 형상화한 작품들로 사찰의 법당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꾸며졌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간단한 법문을 듣고 마음을 정돈한 후 이어지는 작품들을 감상하게 된다. 2부 전시는 개개인이 가지는 '역사'를 형상화한 전시,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은 2층 전시공간의 벽에 붙어 있는 다양한 메시지가 적힌 꽃잎모양의 카드를 1장씩 가져가게 된다. 스님은 전시내용에 대해 "사람이 스러지더라도 그 역사와 나아가는 미래는 이어진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진출처=CNN

'대불도 코로나19 방역'

일본의 한 대불상에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씌우는 작업에 한창이다. 해당 불상은 후쿠시마 현의 호코쿠지 마즈 베츠인(Houkokuji Aizu Betsuin) 사원에 있는 높이 57m 규모의 관음보살상. 노동자 4명은 3시간에 걸쳐 이 관음보살상 얼굴에 세로 4.1m, 가로 5.3m 크기에 35kg 무게로 제작된 분홍색 마스크를 씌웠다.

이 사원은 불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는 취지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대불에 마스크를 씌우게 된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다. 사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지진으로 인해 대불의 안면 부분이 훼손된 후 복원을 위한 회의에서 이러한 마스크 제작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씌워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